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박 용 두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진로장애를 통해 알아보고 이들 관계에서 정서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 척도, 정서지능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 및 진로장애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장애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진로장애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외적 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애의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장애의 두 가지 유형 중 진로 내적 장애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와 모형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진로장애,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2007년 2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 02) 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진로 선택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이다. 진로 결정과 선택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현재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와 불투명한 취업 전망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선중, 2005; 김영란, 태보영, 2001;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2000; 황상민, 박재일, 1997). 따라서 진로에 대한 관심은 현재 불안한 취업 시장과 경제적 불황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진로 결정 및 선택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도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진로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제언된 바 있다. Mazurek와 Shoemaker(1997)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진로성취, 진로결정, 진로관리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이 밝혀졌다(Hackett, Betz, 1981; Taylor, Betz, 1983). 이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반복해서 밝혀져 왔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진로 관련 연구들이 가졌던 한계는 이들이 주로 개인적 그리고 심리적 변인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개인이 진로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야기할 수

있다(Brown, Lent, 1996). 이에 Lent, Brown과 Hackett(2000)는 사회인지적 이론에 기반하여 진로 관련 연구에 있어서 환경 변인의 영향력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Lent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환경적 지지와 지각된 진로장애를 특정한 교육적 또는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방해하는 잠재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인지적 이론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애가 진로선택 및 진로 실행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지지와 환경적 진로장애는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 목표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한다고 제안하였다(Lent, 1994; Lent et al., 2000, 2001). 진로장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진로장애를 직업이나 진로 계획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Swanson & Daneels, 1995) 또는 개인 내적 요소나 환경 안에서 개인의 진로 발전을 방해하는 사건이나 조건(Swanson & Woitke, 1997))으로 정의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대학생이 경험하는 중요한 진로 문제로 보고, 진로 결정 시 경험하고 지각하게 되는 어려움을 진로장애로 정의하였다(Tak & Le, 2003).

사회인지이론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진로장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Luzzo와 Jenkins(1996)는 지각된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지만 Swanson과 Daniels(1995)의 연구는 진로결정과 진로장애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Shuttleworth(1992)의 연구에서도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경험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우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성숙도 수

준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이상희, 200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장애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이명숙, 2000). 이와 같이 불일치한 연구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관되지 않은 검사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매개 변인의 존재 여부이다. 진로장애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사이를 연결하는 다른 변인의 역할 또는 진로장애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개인차를 유발하는 변인의 역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지적 영역만을 고려한 측정 변인의 사용이다. 진로 결정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한계점은 인지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Lee(1994)는 진로장애지각과 진로의 사결정의 관계에 다양한 변인이 관련될 가능성을 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최근 진로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정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여러 연구들(Bechara, Damasio, Damasio, & Lee, 1999; Bechara, Damasio, Tranel, & Damasio, 1997; LeDoux, 1996)과 정서지능 이론들(Bar-On, 2000; Goleman, 1995, 1998; Mayer & Salovey, 1997)은 정서가 진로의사 결정에 수반되는 인지과정에 상호작용하고 실제로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진로결정의 복합적인 행동과 관련된 정서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써 정서 지능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Carson & Carson, 1998; Kidd, 1998; Menhart, 1999).

Salovey와 Mayer(1997)은 정서지능을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유발된 정서를 삶의 바람직한 성취를 위해 효과적으로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좌절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동기화 시키며 스스로의 충동에 대한 억제와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게 하고,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로 합리적인 사고가 저해되지 않도록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서지능이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으로서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적응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서지능에 대해 진로와 관련하여 Brown 등(2003)은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고, 직업 탐색과 직업현신에 대한 명확성과 확신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정서지능과 진로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은 진로성숙,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긴밀한 관계를 보였으며(강주영, 2006; 이중희, 200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서 보고되었다(유나현, 2005).

진로장애는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Lent, 2001)일뿐만 아니라 진로장애들에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 불안,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ndon, 199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로장애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지각된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조건이나 상황 요인이다. 따라서 진로장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은 진로 결정 시 경험하게 되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지각된 진로장애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즉 더 많은 어려움을 지각할수록 개인은 진로 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Lazarus 등(1993)은 개인의 정서적 능력이 상황적 스트레스 여부나 스트레스로 인해 수반된 정서 통제 및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Lazarus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Lopes와 그의 동료(2004) 및 Trinidad 등(2004)은 자신의 정서를 쉽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사람은 주어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의 경우 정서지능이 높은 고등학생이 부정적 정서 체험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였다(한태영, 이세란,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 결정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 유발과 관련된 진로장애와 스트레스 조절 능력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정서지능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로 결정 과정에서 정서가 인지적 능력 요인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일련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정서 역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진로 상담의 실제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의

관계성 탐색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진로장애의 분류와 관련된 것이다. 진로장애 구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진로장애를 외적 좌절/내적 갈등(Crites, 1969), 내적 장애/외적 장애(O'Leary, 1974), 환경적 장벽/개인적 장벽(Bets, 1994)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개인의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들의 종류와 특성들을 밝히고, 이러한 진로장애들과 진로 결정 과정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로 상담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애를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로 구분한 후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애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활용 및 대처 능력과 관련 있는 정서지능이 진로 발달을 잘 예측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요인인 진로장애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밝혀 진로 결정 시 정서의 역할을 밝히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서지능,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서지능은 내적 진로장애를 매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정서지능은 외적 진로장애를 매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56(44%)명과 여학생 321(5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6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20.89(SD=2.67)세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73명(46.9%), 2학년 160(27.5%), 3학년 78명(13.4%), 4학년 65명(11.2%)이며 전공별 분포는 상경대학 79명(13.6%), 사회과학대학 124(21.3%), 이문대학 78명(13.4%), 이과대학 87명(14.9%), 공과대학 159명(27.3%), 기타대학 48명(8.3%), 불응답자가 7명(1.2%)을 차지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IRB 지침에 따라 연구자 참여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관리가 이루어 졌다.

측정 도구

진로장애 측정도구

진로장애 척도로는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진로미결정검사(Korea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KCII는 5점 척도 총 22문항으로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가지 하위 요인은 직업 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등이다. 4가지 하위 요인, 직업 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은 진로결정 시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내적인 어려움을 측정하는 것이고 외적 장애는 진로 결정 시 개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인정과 같은 환경적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다(Tak & Lee, 2003). 한국 대학생 진로결정 장애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6에서 .89였으며, 진로장애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chutte 등(1998)이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EI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IS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요인의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 2주 후의 재검사 신뢰도는 .78로 보고되었다(Schutte 등, 1998). 각 문항들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정서지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진로 결정 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을 측정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와 Voyten

(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ventory Short-Form, CDMSE-SF)을 이은진(2001)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F는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5개 하위 요인은 자기 평가, 직업 정보 수집, 목표 선정, 계획 수립, 문제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확신이 없다(1)’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10)’까지 10개의 구간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문항들의 합을 합산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며 높은 점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 이용한 진로장애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애, 정서지능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시행한 후 중다회귀 분석과 AMOS 4.0을 사용한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χ^2 검증은 전집 오류가 적은 좋은 모형도 너무 엄격한 평가설의 내용(모형은 자료를 완벽히 설명한다) 때문에 쉽게 기각되어 연구자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홍세희, 2000)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

서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사용한 이유는 이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으며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과 더불어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이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결 과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진로장애는 정서지능과 -.48의 상관을 보여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정서지능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각된 진로장애와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 지능은 내적 장애($r = -.48$)와 외적 장애($r = -.50$)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적 장애 하위 요인 중 자기 명확성 요인은 정서지능과 가장 약한 부적 상관($r = -.17$)을 보였고 필요성 인식 부족이 가장 강한 부적 상관($r = -.48$)을 보였다.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은 .57로 정적 상관을 보여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 평가 요인이 정서지능과 가장 높은 상관($r = .54$)을 보였다.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관계에서의 진로장애의 매개 모형검증

정서지능이 진로장애의 두 가지 유형인 외적 장애와 내적 장애를 매개로 진로결정자기

표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58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89**	1												
3	.87**	.76**	1											
4	.72**	.48**	.53**	1										
5	.91**	.77**	.72**	.57**	1									
6	.85**	.68**	.66**	.53**	.76**	1								
7	-.71**	-.70**	-.65**	-.38**	-.67**	-.59**	1							
8	-.71**	-.70**	-.65**	-.38**	-.68**	-.59**	.98**	1						
9	-.29**	-.32**	-.29**	-.07	-.30**	-.23**	.55**	.58**	1					
10	-.60**	-.63**	-.65**	-.26**	-.54**	-.45**	.78**	.80**	.32**	1				
11	-.63**	-.60**	-.52**	-.37**	-.60**	-.57**	.84**	.86**	.35**	.55**	1			
12	-.57**	-.51**	-.49**	-.38**	-.56**	-.48**	.75**	.74**	.24**	.51**	.51**	1		
13	-.37**	-.38**	-.32**	-.21**	-.33**	-.32**	.61**	.44**	.17**	.32**	.40**	.43**	1	
14	.57**	.46**	.54**	.42**	.52**	.50**	-.48**	-.47**	-.17**	-.43**	-.32**	-.50**	-.31**	1
M	159.99	32.33	33.54	30.95	31.56	31.61	54.80	46.87	6.99	10.15	18.23	11.50	7.93	124.05
SD	31.31	8.13	7.20	6.66	7.77	7.03	14.13	12.52	3.21	4.14	5.45	3.63	3.02	14.09

* $p < .05$, ** $p < .01$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 목표 선정, 3. 자기 평가, 4. 문제해결, 5. 계획수립, 6. 진로정보수집, 7. 진로장애, 8. 내적장애, 9. 필요성 인식 부족, 10. 자기 명확성 부족, 11. 직업 정보 부족, 12. 우유부단한 성격, 13. 외적 장애, 14. 정서지능.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을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이 내적 장애를 매개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부분 매개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_{(df = 98)} = 503.832, p < .05; CFI = .926; TLI = .898; NFI; .910; RMSEA = .084$) 연구 결과 연구자가 가정한 것과는 다르게 모형에 포함된 경로 중 외적 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가는 경로($t = -.037$)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장애의 두 가지 유형 중 내적 장애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주는 반면에 진로 외적 장애의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분 매개 모형(그림 1)과 완전 매개 모형(그림 2)을 경쟁 모형으로 비교 하였다. 부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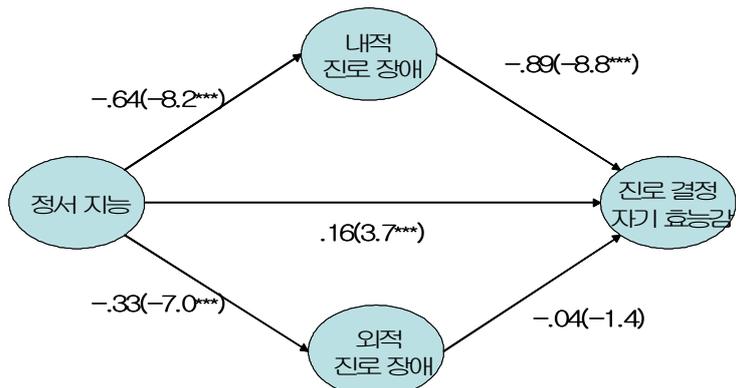


그림 1. 진로장애의 부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은 t 검증치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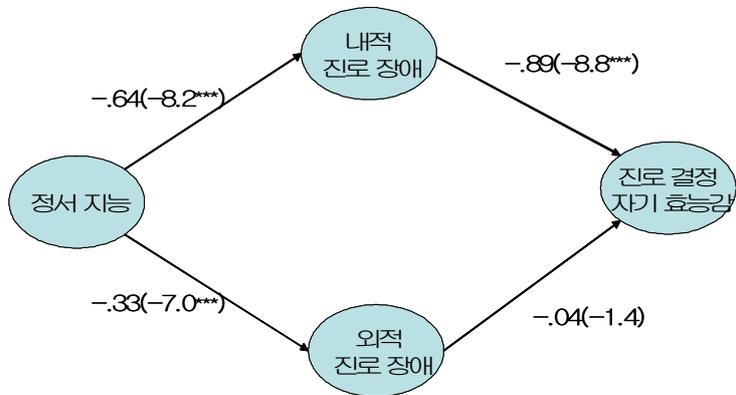


그림 2. 진로장애의 완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은 t 검증치 ** $p < .01$

은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고 완전 매개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완전매개 모형($df = 100, \chi^2 = 516.576$)과 부분매개모형($df = 99, \chi^2 = 503.832$)을 비교하여 카이검증을 한 결과 두 모형의 χ^2 차이값은 13.744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로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진로장애의 부분 매개 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완전 매개

모형의 RMSEA와 TLI, CFI 값을 고려했을 때 진로장애의 완전 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않았다. 즉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서지능이 내적 장애를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간접 영향 둘 모두가 유의미한 반면에 정서지능이 외적 장애를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간접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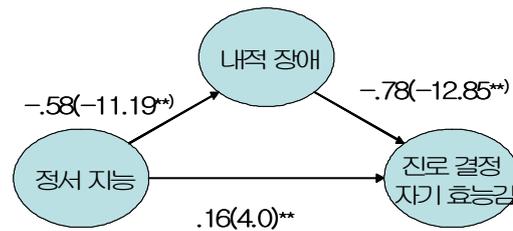


그림 3.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관계에 대한 내적 장애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은 t 검증치 ** $p < .01$

이를 토대로 진로장애 유형 중 외적 장애를 제외한 후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내적 장애의 부분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그림 3의 수정 모델을 채택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정 모델은 수용 가능한 정도의 적합도로 나타났다. ($\chi^2_{(df = 51)} = 311.9, p < .05; CFI = .943; TLI = .926; NFI; .933; RMSEA = .094$) 즉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애를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간접 영향도 유의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Lazzarus (1998)와 Lent 등(2001)이 제안한 바를 기초로 지각된 진로장애,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한 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

항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진로장애의 지각이 진로 결정이나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Luzzo; 1997, Luzzo & Jenkins, 1996). 또한 정서지능과 지각된 진로장애 간에는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에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존 진로 관련 연구들에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의사 결정 양식 등 개인의 인지적 영역과 진로 태도, 진로 성숙도 등 비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탐색을 시도 한 경우는 있지만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정서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를 시도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유발된 정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서 활용 능력이 진로장애를 지각하거나 진로 결정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한 정서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 결과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진로장애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서 역할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Lopel 2004; Trinidad, 2004)이며 정서지능이 왜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 유발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진로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신감이나 활용능력이 높아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동일한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지각된 진로장애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낮게 지각하며 스스로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기 개념을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진로장애 지각에 있어서 성차나 인종 차 등과 같은 집단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으로써 진로장애 지각에 있어서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인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동일한 여성이나 유색 인종들이 진로장애를 지각한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개인이 지각하는 장애의 종류나 수준은 각기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정서지능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된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같은 진로 결정과 관련되는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지능과 같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지능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본 연구는 기존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불일치한 결과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결정되기 보다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과 성공 경험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 및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진로 장애 지각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성공적인 진로 과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Cooper(1997)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진로장애는 자신의 진로 결정에 방해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사건으로 개인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진로 결정 과정과 관련된 과제 수행 성공 경험은 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바람직한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 효율적인 정서 대처 및 활용 능력이 있는 개인은 유발된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이 그렇지 못한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긍정적 정서의 영향력은 보다 더 커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로 장애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기 쉬울 것이다.

셋째,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진로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지능이 내적 장애를 매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적 장애를 매개로 할 때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진로장애의 유형에 따라 정서의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제 개인의 정서적인 영향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의 유형은 내적 장애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지각함에 있어서 자신

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외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둘 수 있다. Powell과 Luzzo(1998)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과정에 있어서 내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개인의 통제성과 진로와 관련된 변인의 하나인 진로 성숙도의 관련성은 높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 통제의 가능성과 활용의 용이성이 외부 귀인의 스트레스보다 내부 귀인의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장애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중 하나는 연구결과가 진로 선택과 관련된 진로 발달 단계의 한 과정에서 보여 지는 과도기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생 집단들 중 1학년과 2학년의 구성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이러한 표본 집단의 특성상 외적 장애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적 장애가 자신의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3학년과 4학년에 비해 1학년과 2학년의 경우는 진로장애 중 외적 장애에 해당하는 취업 상황이나 임금, 주변 타인들의 지지가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진로 결정의 유예 기간을 갖고 있는 1학년 및 2학년과 상대적으로 1학년 및 2학년에 비해 현실적인 진로 결정 단계에 당면한 3학년과 4학년이 지각하는 현실적인 진로장애의 요인과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은령(2001)은 유사한 진로 발달 단계에 있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지각하는 결정의 시급성이나 심각성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내적 장

애의 영향력이 외적 장애보다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단계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애의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진로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결과 정서지능은 진로장애 유형 중 내적 장애만을 매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진로장애로 인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 시 내담자의 현재 진로 결정 단계나 진로 성숙도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진로장애의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진로장애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 내담자가 경험하는 진로장애의 유형이 내적 장애라면 정서를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서 인식, 조절, 활용 능력이 진로 관련 스트레스 사건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실제 자기 자신의 진로 관련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 신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효과의 증진을 위해서는 실제 진로 상담에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자신감이 없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들의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서 조절 능력과 어려움의 종류 역시 같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진로장애의 유형을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로 구분하여 정서 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진로장애의 이분법적인 유형 분류는 개인이 지각할 수 있는 진로장애의 유형을 단순하게 유목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Swanson과 Tokar(1991)는 진로장애를 세 가지의 유목-태도적 장애, 사회적/대인적 장애, 상호작용적 장애으로 구분하는 삼원적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고 Russel과 Rush(1987)는 진로장애의 구인을 6개 요인으로 추출하여 인위적인 진로장애 유형을 구분하기 보다는 실제 현장 또는 생활 장면에서 지각되는 진로장애들을 유목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실적인 진로장애가 보다 통합적으로 반영된 후속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진로장애 매개 모형은 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분적 과정만을 살펴 본 모형이다. Lent(2000) 등은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진로장애는 환경적 요인의 일부분일 수 있고 이러한 진로장애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흥미와 목표 선택 및 목표와 행동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이라는 행동 및 목표에 대한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통합적인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정서의 역할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의 표본 집단은 1학년과 2학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정 장애들이 일반화 되어 개인들의 진로 결정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개인의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애의 유형과 영향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 내적 장애가 진로결정과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이러한 표본의 특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가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적 진로 결정의 시기에 임박한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에 의해서도 지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진로 발달 또는 진로 결정 단계에 따라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정서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종단 연구가 아닌 횡단연구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즉 진로 관련 과제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정서 조절 및 활용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만으로 정서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한 정서지능,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후속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검사 도구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검사 도구는 한국진로미결정 검사도구이다. 비록 이 검사도구가 진로결정 시 경험하고 지각하게 되는 어려움의 내용과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진로결정 시 방해를 주는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의 어려움의 내용이 상응하여 지각된 진로장애도구로서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보다 진로 결정시 지각되는 실제적인 진로장애 측

정의 한계는 갖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각된 내외적장애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실제적인 측정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영 (2006). 부모애착과 정서지능이 자기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태보영 (2001). 상담소 이용 만족도 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인간이해, 22집 서강대 학생생활연구소.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0). 1999학년도(1999 3- 2000 2) 본 연구소 활동 현황. 학생연구 34(1), 75-76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선중 (2005). 진로장애,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1). 진로 장애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 과제. 학생생활연구 20. 81-97
- 유나현 (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희 (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s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중희 (2006).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태영, 이세란 (2005). 청소년의 정서관련 변인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체험정서, 표현정서 및 정서지능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37-58
- 황상민, 박재일. (1997). 학교 이미지, 대학생활동 그리고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인식조사. 대학생활동연구, 6, 22-91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EQ-i)*. In Bar-On & J. D. Parker (Eds.), *Handbook emotional intelligence* (pp.363-388). San Francisco: Jossey-Bass
- Bechara, A., Damasio, H., Damasio, A. R., & Lee, G. P. (1999). Different contributions of the human amygdala and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to decision-making. *Journal of Neuroscience*, 19, 5473-5481.
- Bechara, A., Damasio, H., Damasio, A. R., (1997). Deciding advantageously before knowing the advantageous strategy. *Science*, 275, 1293-1295.
- Betz, N. E (1994).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237-261,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6.
- Brown, S. D. & Lent, R. W.(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Carson, K. D. & Carson, P. P. (1998). Career commitment, competencies, and citizenship.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4), 379-392.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Goleman, D. (1997).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Kidd, J. M. (1998). Emotion: An absent prese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210-229.
-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eDoux, J. (1996). *The emotional brain: The mysterious underpinning of emotional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s, T., Talleyrand, R. & Sur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84). Relation of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56-363.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opes, P. N., Brackett, M. A., Nezlek, J. B., Dchut, A., Sellin, I., & Salovey, P. (2004).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0, 1018-1034.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

- 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 Mayer, J. D.,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Mayer, J. D., Salovey, P., Caruso, D. R., & Sirarenios, G. (2003).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with the MSCEIT V2.0. *Emotion*, 3, 97-105.
- Mazurek, N., & Shoemaker, A. (1997).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089 763).
- Menhart, S. F. (1999). Emotional intelligence: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career succes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 Engineering*, 59(7-B), 3748.
-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Powell, D. F., & Luzzo, D. A. (1998). Evaluat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2), 145-158.
- Robert j. Emmerking & Cary Cherniss (2003)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areer choice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2), 153-167.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chutte, N., Malouff, J., Hall, L., Haggerty, D., Cooper, J., Golden, c., & Dornheim, L.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emotio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167-177.
- Shuttleworth, C. L.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Swanson, J. L., Daniels, K. K.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rinidad, D. R., Unger, J. B., Chou, C. P., Azen, S. P., Johnson, C. A. (2004). Emotional intelligence and smoking risk factors in adolescents: interaction on smoking intentio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4, 46-55.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 원 고 접 수 일 : 2007. 7.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7. 10. 28
게 재 결 정 일 : 2007. 11. 20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Yong-doo Park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ocial contextual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rough career barriers; it also explored the role of emotion in relation to these factors. We confirmed correlations among emotion intelligence,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xamined the hypothesized model that emotional intelligence would predi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rough the partial mediation of career barri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wa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rel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iffered according to type of career barrier.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